

생명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의학과 응용  
 기술이 반생명적인 일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의학은 진정한 「인간성의 과학」  
 일 수 있다.

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질병 퇴치와 건강증진을 통한 수명의 연장에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의학의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학적 지식들에 근거한 의학기술이다.

물론 의학내에 학문적 기초가 확립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순전히 경험과 전승에 의한 진단이나 치료기술이 의학기술의 전부였던 적도 있지만 이미 기원전 히포크라테스 이후부터도 의학은 나름대로 이론적 체계를 세웠고 이런 의학이론에 근거한 진단이나 치료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된 흔적을 우리는 의학사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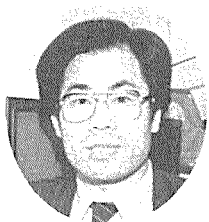
그러나 의학이 그 과학적 방법론에 충실하여 자연과학적 학문 체계를 이룩하

고 이를 토대로 한 진정한 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중세를

전후한 시기 이후로 볼 수가 있다. 중세 이후 의학기술의 발전을 여기서 소상히 열거할 수는 없으나 역시 이 시기에 발달하기 시작한 해부학이나 인체 생리학이 지혈이나 소독, 그리고 절단술등의 외과적 기술을 촉진한 점이라든지 파스퇴르와 코흐등에 의한 세균학이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의 각종 항생제나 항결핵제 개발의 기초를 세움으로써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히던 각종 전염병을 줄이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점은 특히 할 만한 일이다.

특히 1928년 플레밍의 페니실린발견, 그리고 1944년 왁스만의 스트렙토마이

## 의학기술발달과 의학윤리



맹 광 호

신의 발명 등은 이를 제2의 의학혁명으로 까지 불리게 할만큼 획기적 기술이다. 또한 이 시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의학기술 한가지는 역시 베링에 의한 디프테리아 항독소발견과 이를 이용한 면역기술이다. 이같은 면역기술은 결국 천연두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몰아내는데 기여했고 기타 파상풍이나 소아마비, 홍역같은 질환을 줄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암에 대한 항체요법에도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학은 다른 주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힘입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기술 발전에 더욱더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해 온게 사실이다.

예컨대, 광학 및 전자현미경의 발명에 따른 병리적 진단기술을 비롯한 최근 고도의 전자공학이나 재료공학 기술에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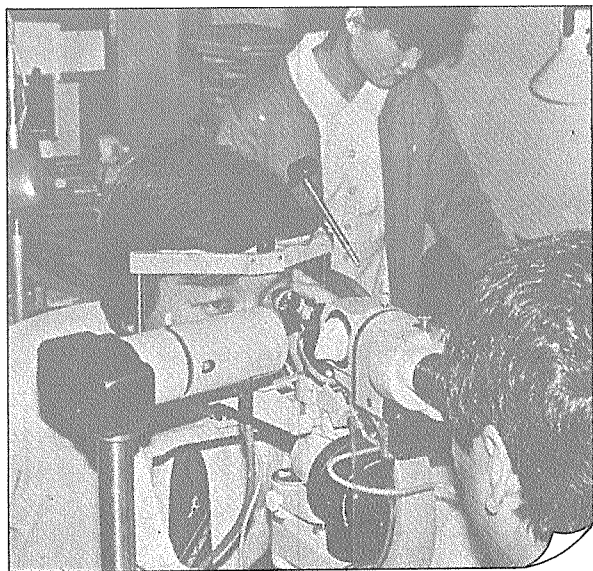
입은 각종 진단용 컴퓨터와 의용공학 기술의 발달, 그리고 분자 생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유전공학기술의 등장 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온 각종의 학기술은 결국 그 모두가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의학기술 그 자체는 본래 인류에게 이익만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서 조금도 틀리지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의학기술이 다른 과학기술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의학기술이 그 개발 목적에서 부터 고귀하고 철저히 옳은 일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는 데 있다.

이에 비하면 가령 과학기술의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핵기술같은 것은 일면 많은 핵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 생활에

▶ 의학은 다른 주변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기술 발전에 더욱 더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해 왔다.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면은 처음부터 이것을 적대국에 대항하기 위한 가군할 무기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은 의학기술과 달리 애당초 도덕적으로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는 기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의학기술이 다른 어느 기술들에 비해서 더 빈번하게 윤리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

불임 부부를 위한 인공수정방법내지는 시험관아기제조기술, 그리고 유전자조작내지는 세포융합기술에 의한 생명체합성의 시도등이 그것이다.

다 아는바와같이 기술이란 본시 일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지식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 기술의 본래 목적이 어떻든지 그 기술의 효용성은 그것이 실제로 적용된 경우에 나타나게 마련인데

●오늘날 의학기술이 다른 것들에 비해 더 빈번히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옳은 기술이 잘못 쓰여지고 있거나 그런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는데 있다.●



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런 옳은 기술이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쓰여지고 있거나 적어도 그런 잠재적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있다.

이것은 특히 최근에 빠른 속도로 개발 보급되고 있는 생식의학분야 기술이나 유전공학기술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예컨대, 인구증가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각종 인공유산기술이라든지, 이 경우 기술의 윤리성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마

련인 것이다.

따라서 의학기술이 그 자체로서 아무리 좋고 옳은 것이라 해도 실제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한 처음부터 옳지 않은 목적을 지닌채 개발된 다른 기술들과도 그 잠재 위험성에 있어서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의학기술의 윤리성 문제는 그것이 잠재적인 위험성으로는 존재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때 나치 수용소의 의사들처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의학기술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의사들은 전혀 이런 생각으로 '그들의 의학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학기술과 의학윤리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를 기우 정도로 생각하거나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결과가 어찌됐든 의사는 환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의학적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의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다.

물론 환자를 도와준다는 이런 의사들의 생각에 근본적인 잘못이 없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의학기술의 사용이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예컨대, 엄연한 반생명적 행위인 인공유산이 거의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태아성감별 기술이 선별 인공유산을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 생명력을 지닌 수정란들이 실험재료화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때문이다.

오늘날 의학기술이 당면한 윤리적 문제는 단지 이런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용 장기습득을 위한 사망의 결정, 다른 여자의 자

궁에 임신시킨 인공수정에 대한 태아소유권의문제, 생명체에 가해질 유전자조작 기술문제등등,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장차 가공할만한 결과까지 초래할수 있는 것이 의학기술인 것이다.

인간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모든 학문과 기술들은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다.

이제 새로운 기술로 등장한 이들 의학분야기술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에 하나 그것들이 갖게될지도 모를 반생명적 요소들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를 그기술개발초기단계에서 중단하거나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일은 이들 기술을 사용하는 의학자들뿐 아니라 사회각분야 사람들, 특히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스스로의 절제가 무엇보다 필요 하다.

생명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의학과 그 응용기술이 반생명적인 일에 쓰이는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때 의학은 진정한<인간성의 과학>일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

